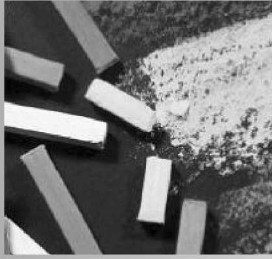


재미나는 표준이야기



이 색은 뭐라고 불러야 하나요?

KS규격을 따르면 복잡하고 헛갈렸던 색 이름 때문에 빗어지는 혼동을 줄여 산업계와 소비자 모두 편리해 진다

모처럼 한가한 평일 저녁, 표 대리와 아내 모두 일찍 퇴근해 아이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마쳤다. 이 저녁의 여유를 즐기려는 듯, 표 대리와 아내는 CF의 한 장면처럼 커피를 한 잔씩 들고 베란다에 나란히 섰다.

고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보는 서울도 그리 나쁘진 않다. 가로등과 자동차 불빛이 진부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석양의 아름다운 풍경이 일에 지친 부부의 하루를 위로해 주는 듯하다.

"여보, 우리 이렇게 저녁 일찍 먹고 여유롭게 쉬어보는 게 얼마만이야?"라며 아내가 살포시 표 대리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다.

바로 이때, 양 손에 크레파스를 잔뜩 들고 목정이 터져라 아빠를 부르며 달려오는 딸내미. "아빠~. 아빠~!!" 표 대리 부부는 딸을 향해 돌아선다.

"그래, 우리 준혜, 아빠를 왜 그리 급하게 찾아?" 표 대리가 딸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춘다.

"아빠랑 색칠공부 하려고요. 어제 하고 싶었는데 언마 아빠가 다 늦게 왔어." 딸아가 입을 내밀며 대답한다.

"여보, 오늘은 당신이 준혜하고 색칠공부해요. 난 준이 숙제나 봐줄게."라며 아내는 빈 커피 잔을 받아 주방으로 향한다.

"음.... 그래 가자. 준혜야. 아빠랑 색칠공부 하러 가자"

딸아이를 안아 올리며 표 대리가 미소를 짓는다. 거실 탁자에 색칠공부용 스케치북을 펴 놓고 딸 아이와 함께 색칠을 시작 한다.



"준혜야, 사람 얼굴을 그렇게 똥색으로 칠해 놓으면 어떻게 해, 살색을 써야지.

이 곳 나뭇잎 색은 초록색이나 청록색으로 칠하고, 하늘은 하늘색 있잖아. 준혜 하늘색 알지?"라고 하는 표 대리의 말에 어린 딸 준혜는 눈만 깜빡거리다, 뭐가 마음에 안 드는 듯한 표정으로 입을 연다.

"아빠, 이지 똥색 아니야. 황토색이야. 아빠 얼굴 색깔도 이 색인데? 내 얼굴은 이런 하얀 살색, 아빠 얼굴은 황토색. 내 입술은 딸기색, 아빠 입술은, 음... 아빠 입술은 무슨 색이에요?"

표 대리, 잠시 딸아이의 크레파스 세트를 집중해 들여다보지만, 자신의 입술 색깔을 뭐라고 설명해 줘야 할지 난감하다.

이 때, 바로 울리는 초인종. 인터폰 화면을 보니 시대 졸업반인 처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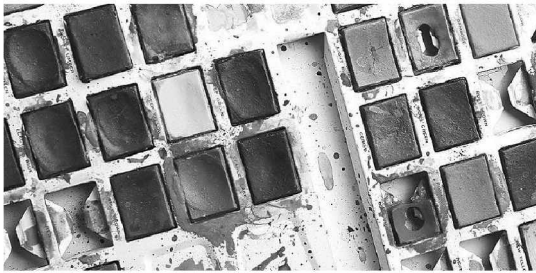
"어, 그래, 처제. 마침 잘 왔어. 문 열어줄게." 아주 반갑게 처제를 맞는다.

"형부, 오늘 일찍 들어오셨네요. 언니한테 부탁했던 화장품 가지러 잠깐 들렀어요. 언니는요?" 활짝 웃으며 현관을 들어서서 처제에게 말한다.

"언니는 준이 방에서 숙제 봐주는 모양이야. 어보, 처제 왔어. 나와 봐."

"형부, 그런데 뭐 하고 계셨어요? 이야~, 준혜랑 그림 그리고 계셨나보네." 처제가 탁자에 앉아 준혜를 안아 올린다.

"이코, 우리 아빠 입술은 무슨 색이야? 내 입술은 딸기색인데, 아빠 입술은 딸기색이 아니야." 준혜가 이모를 보자마자 묻는다.



"우리 준혜가 색깔 공부하는구나. 어디보자, 지금부터는 아빠 대신 이모랑 같이 해볼까?"

준혜의 색칠공부를 넘겨받은 처제가 한 없이 고마운 표 대리, 조용히 소파에 앉아 팔짱을 끼고 딸아이와 처제를 보며 말한다.

"준혜야, 이모가 아빠보다 더 재밌게 가르쳐줄 거야. 기대해도 좋아"

"응, 근데 이코, 딸기색이 빨간색이야? 살색이 살구색이고? 오렌지색은 있는데 왜 귤색은 없어?"라며 궁금한 것도 많은 준혜가 질문을 하자 지혜로운 처제의 대답이 이어진다.

"색깔 이름이 여러 가지라서, 우리 똑똑한 준혜도 많이 헛갈리지? 그렇게 헛갈리지 말라고, 색깔에도 나 정확한 이름이 하나씩 있단다. 이거 봐, 노랑지? 이건 병아리색이야. 이 초록색은 수박색, 진한 빨강은 자두색, 이 예쁜 색은 멜론색. 그리

고 오렌지색은 주황색이라고 해야 맞아. 여기 좋은 짙은 갈색, 아니면 모카색이라고 불러도 돼." 처제는 손가락으로 그림을 하나씩 짚어가며 준혜에게 설명한다.

"쉽지, 준혜야? 색깔 이름은, 앞으로 이모가 하나씩 가르쳐줄게. 치유부터 우리 정확하게 배우자."

"응, 이코, 나는 자두색이랑 멜론색이 제일 좋아. 아, 병아리색도." 딸아이는 신나게 크레파스 몇 개를 손에 쥐 채 색칠 공부에 빠져든다.

둘을 몰끄리미 지키보던 표 대리가 이제야 나서며, "이야~ 처제, 대단해. 그런데, 그 색깔 이름들은 어떻게 된 거야? 색깔 이름이 바뀌었나? 모카색을 애한테 설명하면 안까? 사실은 나도 색깔 이름들은 헛갈려."



관용색 자연이나 사물, 광물의 이름을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색, 하늘색, 벽돌색, 자두색, 키위색 등등 계통색 색을 계통적으로 분류해 표현할 수 있도록 한 이름의 색, 빨강, 진한 연두, 연한 노란분홍 등등

"형부, 제 작년부터 표준 색 이름 제정됐는데, 모르셨어요? 살색 표기가 살구색으로 바뀐다는 제목으로 보도도 크게 됐었는데, 사실, 색 이름들이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서 그 동안 많이들 헛갈려 하긴 했죠. 그게 실제로 산업, 경제적 측면으로 가져온 손실도 꽤 컸다고 해요. 물론 문화적, 교육적 측면에서도 애매한 진들도 많았을 것이고요. 그래서 기술표준원에서 국가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표준 색 이름 정리 작업을 한 것 같아요. 형부! 준혜 색 이름 깨우치기 공부는, 앞으로 제가 맡을게요. 저는 앞으로의 진로 때문이라도 색 이름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니까요." 처제가 애교스런 웃음을 지어 보인다.

옆에서 조용히 색칠공부에 열중하던 준혜도 입을 연다.

"이모, 이모. 우리 아빠한테도 가르쳐줘요. 색깔 이름. 나도 빨리 배워서 옆집 친희한테 알려줘야지." 표 대리의 어이 없다는 웃음에 센스 있는 처제가 한 마디 끼낸다.

"형부, 배워두시면 그게 다 어떻게든 경쟁력이 될 거예요. 요즘은 고 감성 색채시대라고 하는데, 형부 같은 대기업 직장인들은 당연히 알고 계셔야 할 사항 아니겠어요? 기본적인 색 이름 정도는 말예요."

"음, 그래, 처제 말에 일리가 있네. 그 표준색 이름 소개하는 책이라도 하나 구할 수 있는지 처제가 좀 알아봐줘."

[표준 TIP]

살색은 살구색, 수박색도 표준 색이름

실생활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면서 색상의 연상이 쉽게 떠오르는 명아리색(노란), 수박색(초록), 자두색(진한 빨강) 등과 최근 식생활 변화에 따라 자주 사용되는 색 이름인 키위색(진한 연두), 멜론색(연한 녹연두), 모카색(어두운 갈색) 등 새로이 추가되는 42개를 포함한 133개의 관용색이름이 국가 규격(KS)으로 인정돼 문구용이나 디자인, 산업 부문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인종차별 논란을 불러왔던 살색은 살구색(연한 노란분홍)으로 바뀌 부르게 되었다.

여기서 '관용색이름'이란 자연이나 사물, 광물의 이름을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색으로 하늘색, 벽돌색, 자두색, 키위색 등등이 이에 속하고 '계통색이름'은 색을 계통적으로 분류해 표현할 수 있도록한 이름으로 빨강, 진한 연두, 연한 노란분홍 등등이 있다.

색채표준에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에서 얻을 수 있다.



일본 초밥 폴리스의 좌절

자국의 초밥 문화를 '스시 폴리스' 제도로 세계 표준화를 시도한 일본



"저녁이나 먹고 집에 갑시다, 내가 살 테니까 약속 없는 사람들은 같이 가자고!"
어느덧 기러기 아빠 경력 3년차가 된 송 과장이 오늘 저녁을 신다며 퇴근을 앞 둔 직원들을 신동한다. 혼자 저녁을 먹어야 하는 기러기 아빠의 실움을 달래 주려는 건지, 아니면 쫓 산다는 송 과장의 공짜 저녁이 좋아서인지 약속 있는 몇 명을 빼고는 다들 흔쾌히 나선다.

저녁 메뉴를 뭘로 할까 고민하던 이들은 송 과장의 안내로 얼마 전 회사근처에 오픈한 초밥 뷔페 레스토랑으로 갔다. 레스토랑에 들어서니,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접시를 초밥을 담기 위해 줄을 서 장사진을 이룬다.

언제부터 초밥이 이렇게 대중적인 음식이 되었을까 의아해 하며 직원이 안내해 준 자리에 앉자마자 표 대리 일행도 접시를 하나씩 들고 그 대열에 합류할 한다.
벽을 직스럽게 보이는 초밥들을 접시 한가득 담고선 각자 자리에 앉아 정신없이 먹기 시작한다. 그렇게 한잔을 먹던 중, 표 대리 옆에 앉아 있던 김 주임이 발을 꺼낸다.

"표 대리님, 혹시 '스시 폴리스' 라고 들어 보셨어요?" 뜬금없는 질문에 무슨 소리인가 싶어 되묻는다.
"초밥 경찰? 그런 것도 있나? 처음 들어보는데, 그게 뭘데?" 표 대리가 되묻자 이에 송 과장이 때

때친 안고 있다는 듯 대화에 끼어 이야기를 풀어 놓기 시작한다.

음식과 문화의 표준화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장소에서도 같은 질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하하, 김 주임도 오늘 아침 그 라디오 프로그램을 들었나보네. 나도 거래처 가던 길에 들은 내용인데, 다들 안고 있다시피 지금 우리가 먹는 이 초밥이 일본의 대표적인 음식이잖아. 근데 이 음식이 이제는 미국, 유럽, 아시아 등에서 안 즐기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세계화가 되었지. 그만큼 초밥전문점을 내세운 음식진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곳곳에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나니까, 일본에서 자국의 초밥을 지키고자 '올바른 일본 음식 인증제도'라는 표준을 만들었네. 그리고 일본의 초밥 대가들이 짙둥 초밥을 가려내기 위해 초밥 경찰을 외국에 파견하겠다고 했나지? 그 소식에 세계 각 나라, 특히 미국의 향의가 심해서 결국 취소했다고 해.

이렇듯 음식분야에서도, 자국의 음식을 왜곡되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의 표준화 노력은 가상하지 않은가? 우리도 김치를 비롯해 불고기, 비빔밥 등이 점점 세계화가 되어 가는데, 이런 점을 비취 볼 때 우리도 우리 고유 음식에 대한 표준화를 시도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의 라디오 방송이었어. 그런데, 그것 참 듣고 보니 맞는 말이더라고"



김 주인도 송 과장의 말에 이어 덧붙인다.
"네,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기술이나 제품에만 표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음식이나 문화에도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치를 담그는 방법이 세계적으로 표준화가 된다면, 우리 고유의 특색 있는 김치 맛을 전 세계 사람들이 쉽게 공유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에 대한 로열티 수입은 또 얼마나 커지겠어요? 생각만 해도 벌써 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한마디 하는 표 대리. "과장님, 우리도 이참에 김치, 고추장, 된장, 불고기 등 우리나라 음식을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외국 마이어 접대는 무조건 한정식으로 하는 건 어떨까요?"

[표준 TIP]

한국의 김치와 고추장은 세계적인 표준 식품

최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제 30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고추장과 인삼 제품 규격 안이 5단계의 심의를 통과 채택되어 관 국제식품으로 등록이 되며, 특히 고추장은 우리 말 그대로인 'Gochujang'이라는 영문명으로 규격화가 진행되고 있어 김치(Kimchi)에 이어 또 하나의 우리나라 고유 명칭을 가진 국제식품이 탄생할 것입니다.

| 기술표준 2009.6

